

썬텍그라스, 특수기능 유리제품 선보여

썬텍그라스가 중국 국제터치스크린 전시회에 참가했다.

디스플레이 및 모니터 강화유리 전문기업인 썬텍그라스(대표 이보결)는 11월24-27일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<제7회 국제 터치스크린 전시회>에 참가해 LCD(Liquid Crystal Display), PDP(Plasma Display Panel), DID (Digital Information Display), 태블릿PC, 전자칠판 등에 사용되는 각종 특수유리를 전시했다고 12월19일 발표했다.



썬텍그라스는 전시회에서 Anti-Glare Glass(난반사 방지), Anti-Reflective Glass(무반사 유리), Anti-Bacterial Glass(항균 유리), Anti-Fingerprint Glass(지문방지 유리) 등의 기능성 유리제품과 AG+AR, Ultra Anti-glare Glass 등의 복합기능성 신제품을 선보였다.

썬텍그라스는 2009년 중국 청도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, 경기도 김포공장에서 양질의 모니터용 강화유리를 전문적으로 양산하기 위해 광학용 유리 가공기 및 초음파 정밀 세척기, 실크인쇄 설비 등을 도입해 제단에서 가공, 강화, 실크인쇄, 정밀세척, 포장에 이르기까지 한 라인에서 대량생산하기 위해 설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

썬텍그라스 관계자는 “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자기기들의 초소형화 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1/12/19>